

소리없는 저승사자 뇌졸중 증상과 예방법

담배 끊고 콜레스테롤 줄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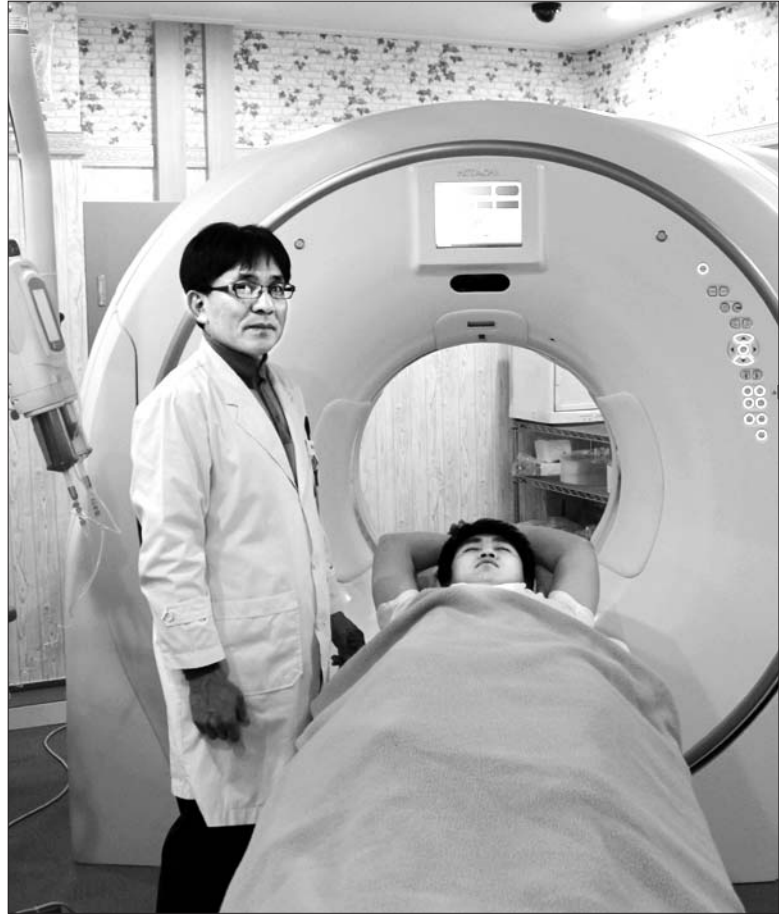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의 하나다. 국내 사망 원인 중에서 앞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감각 손실·근육 약화 등이 위험신호

포도주 등 소량의 음주는 발생 억제

◇뇌졸중(腦卒中)이란? = 뇌혈관 장애로 인해 갑자기 국소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발생해 24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라고 정의되고 있다.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3배의 뇌졸중 발생이 예상된다. 고혈압은 조절 가능한 뇌졸중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고...



찾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회사원이 뇌졸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곡병원에서 '64채널 CT'검사를 하고 있다. '64채널 CT'는 기존 CT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구조 발견, 심장 등 움직이는 장기의 영상화가 가능하다.

적, 개인적 행동의 변화 ▲사지나 안면부 등에 운동장애이나 마비 ▲안면부나 사지에 감각장애나 이상감각 ▲언어장애나 언어의 이해 장애 ▲시력이나 시야 장애 또는 복시 ▲어지럼증이나 신체균형 유지 장애 ▲언어장애 ▲구역질 또는 구토 ▲의식장애 ▲두통 ▲간질발작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CT와 MRI가 초기 영상 도구로 선택될 수 있다. 관류 CT가 뇌경색과 뇌허혈 부위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선상 CT 혈관조영술은 두개강내외의 혈관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어서 혈관의 협착 및 폐색에 대한 정보와 뇌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파열 여부 등의 영상을 제공해 진단·치료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위 증상이 있다고 모두 뇌졸중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위의 증상이 수분에서 수 십분 가량 있다가 저절로 사라져 24시간 이내에 아무 증상 없이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CT 기기의 발전으로 다중검출기를 보유한 CT(예를 들면 64채널 CT)에 의해 기존의 CT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만들고,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영상을 만든다.

◇뇌졸중 증상=뇌졸중에 의한 증상은 뇌졸중이 발생한 뇌의 각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에는 ▲기억력, 판단, 그리고 인식력 변화와 약화 ▲정신혼란 또는 의식상실 ▲최근 사회

◇일곡병원 이은열 원장 <정리>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4년간 인증마크 사용...정부 각종 행정·재정 지원 받아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만우)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증기관을 우대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과 질 향상·시설 및 환경안전·약물관리·감염관리·인적자원관리 등 병원의 전 부문에 걸쳐 모두 404개 항목에 대한 환자주조사와 서류심사 등 세밀한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조선대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인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인증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oha.or.kr) 등에 인증결과를 공표,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만우 병원장은 "이번 의료기관 인증으로 조선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호남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선대병원은 인증유효기간인 4년 동안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통한 시장 선점과 여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처음 시행된 제도로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4일간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환자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혈액 채취 않고도

당뇨병 혈당 체크

당뇨병 환자들이 매번 혈액 채취를 하지 않아도 혈당 체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윤현석 교수(고분자 섬유시스 템공학과)는 최근 광학적인 방법으로 혈당을 측정



전남대 윤현석교수

바이오센서 개발 성공

할 수 있는 단백질-고분자-탄소나노튜브 복합체 바이오센서 개발연구에 성공했다.

현재 당뇨병 환자들은 효소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 직접 혈액을 채취해 혈당 체크를 하고 있다.

윤 교수의 연구가 실용화되면 피부에 특수 칩을 투입, 혈당 데이터를 수시로 전송받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화학전문지 '널 안게반테케미' 2월호에 게재했다. /채희중기자 chae@

조선대 치과병원 의료봉사단 발대식

조선대 치과병원(병원장 김병욱)은 최근 병원 회의실에서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선대학교 이상열 부총장을 비롯 김병욱 병원장, 강동완 교수, 황호길 전임

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구강검진과 치료진료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더 많은 양질의 치과무료 인술을 펼치기로 하였다.

전남 지역을 비롯해 해외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금번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통해 광주시 각 구청 및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

의료봉사단은 안종모 교수(진료부장)를 단장으로 전공의, 치과위생사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위생과 대학 재학생들도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다. /채희중기자 chae@

담석증 환자 8년만에 1.9배 증가...76% 50대

전남대병원 자료 분석

명치(심와부)나 오른쪽脇배(우상복부)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1~4시간 동안 지속되고, 특히 기름기가 많은 식사를 한 후 또는 과식 후 나타나면 담석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담석증이란 담즙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 침착되어 형성된 담석이 담낭 경부, 담관관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 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담석증이란 담즙 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 침착되어 형성된 담석이 담낭 경부, 담관관혹은 총담관으로 이동하여 염증이 나 폐쇄를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003년 1067명에서 2006년 1489명, 2010년 2030명으로 2003년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윤리에 근거를 두고 생활을 하며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생활 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이 있는 쌍꺼풀이 좋다고

을 수 있다. 짙은, 쌍꺼풀 풀어짐, 수술 부위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통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서구적이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표정이 있는 동양적인 쌍꺼풀을 만드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꺼풀 수술이란 중검 예정선의 피부를 검판 또는 안검거구의 적당한 부위에 유착시키는 조작이다.

수술방법은 피부 비절개는 매물법이라고도 하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수술 후 수정이 용이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젊은 여성들은 절개수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안검 피부가 과다하거나 안검하수, 안검, 안와 지방의 과다 또

는 반흔이 있는 상안검 등에서는 피부절개법이 적절한 수술이라고 생각된다.

수술전 시력검사, 안검하수의 유무, 좌우의 균형을 관찰하여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며 환자가 이해하고 승낙하는 것이 수술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요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술 후 1주일 은 세면이 불가능하며, 목욕은 발사 후 3일 후에 안검의 부종이 3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없어지며 6개월이 되어야 수술자국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쌍꺼풀 수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같은 쌍꺼풀이라도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쌍꺼풀이 있고 안면골의 골격이나 눈의 연부조직이 서양인들과 다른 동양인으로는 눈만을 서구인에 닮으려 해도 부자연스러우며 또 다른 기관과의 균형도 잡히지 않